

최연경

아라온을 탄 45일이란 시간은 저에게 큰 행운을 만끽했던,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. 집에 돌아와 생각하니 후회는 없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흐른 시간이었으며, 바다를 떠나 온 것이 믿기지 않고, 아라온에 미련을 많이 두고 온 것 같습니다. 고작 한 달 반일지 모르지만 저에겐 애정을 많이 쏟았던 시간이었나 봅니다.

남극 탐사자 모집한다는 것을 봤을 때, 제가 세웠던 앞으로의 계획과 어긋났기 때문에 신청하기까지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런데도 남극을 선택한 것은 제가 늘 품고 있던 '남극 가고 싶다'란 꿈 때문이었습니다. 아라온을 탄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에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게 되었습니다.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, 앞으로 만나게 될 선택지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실제로 배에 타기 전 복잡했던 제 머릿속은, 하선하면서 많이 정돈되어서 행복했습니다. 무수히 많이 나눈 대화도 아직 생생하고, 나이와 상관없이 함께 어울린 시간도 기억에 많이 남아있습니다. 그 덕분에 여운이 너무 길게 남는 것 같기도 합니다.

본격적인 탐사 기간은 마음도 긴장하고 26시간 정도를 깨 있기도 했지만, 실시간으로 연구 수행 과정을 지켜보며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매 순간이 너무 뿌듯했고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. 아라온에서 겪은 수많은, 즐거운 일들이 있었지만 45일이란 기간 중 탐사 기간이었던 5일,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도 가치 있었던 시간입니다.

항해 기간에 파도가 세서 멀미도 꽤 했었지만, 지금 생각해보니 그 순간도 마냥 웃기고 즐거웠다고 기억됩니다. 그리고 남극 탐사를 하러 간다고 했을 때, '펭귄을 볼 수 있다'란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못 봤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남극 기지를 못 가게 되었다는 점도 아주 아쉽습니다. 배에 승선한 후의 생활들, 밤에 보이던 별, 적도, 유빙 위의 바다표범, 일출과 일몰... 많은 것들에 대해서 첫 경험을 안게 해준 이번 남극 탐사는 어쩌면 꿈이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. 또한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앞서, 응원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항해라고 기억하겠습니다.

마지막으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던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던 말을 하고 싶습니다.